

보도

2021. 5. 3.(월) 조간부터

배포

2021. 4. 30.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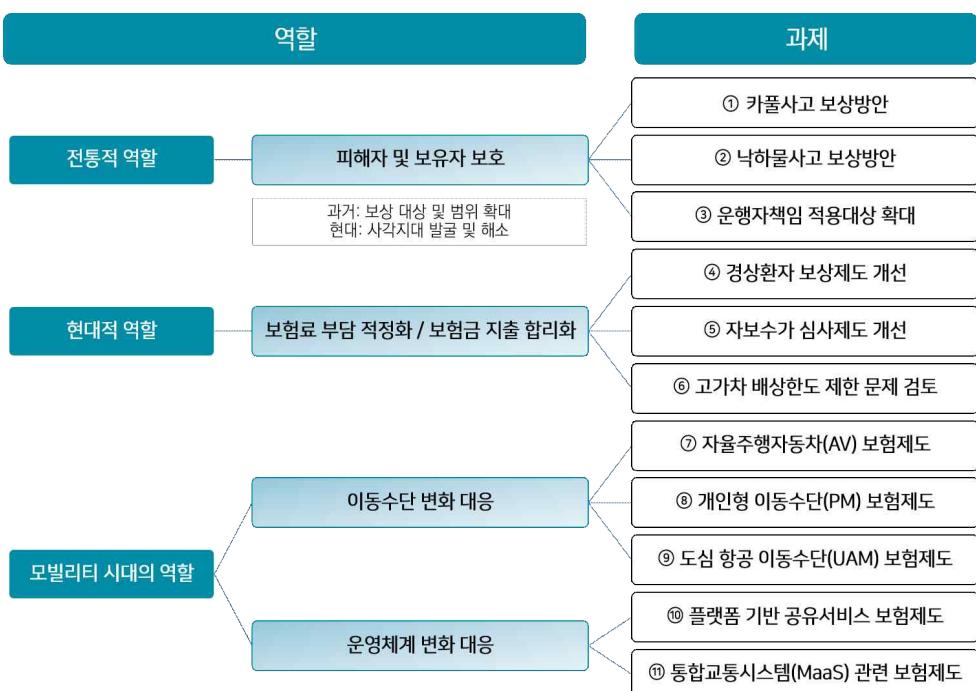
책임자	연구조정실 김해식 실장(3775-9041)	작성자 홍보담당	황현아 연구위원(3775-9047) 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	총 2매

## 보험연구원, 『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』 CEO Report 발간

### “보상 공백 해소, 계약자 부담 적정화 및 모빌리티 시대 대응 필요”

-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역할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『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: 자동차보험의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』 보고서를 발간함(CEO Report 2021-4)
-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(i) 전통적 역할, (ii) 현대적 역할, (iii) 모빌리티 시대의 역할로 구분하고, 이와 관련된 11가지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

〈그림〉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



-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및 자동차 보유자의 생활안정을 담당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
  -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보상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으나, 최근에는 보상 공백 빌미 및 해소가 주된 과제임
  - 이와 관련하여, ① 카풀사고 보상 방안, ②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, ③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- 자동차 대중화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부담 적정화 및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의 필요성이 높아짐
  - 보험사기 예방 및 경미사고 대물배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, 적자가 지속되어 추가 대책이 요구됨
  - 이와 관련하여, ④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및 ⑤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지출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음
  - 보험료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된 ⑥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문제는 주요국 사례 및 손해배상 원리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한편, 이동수단의 중심이 ‘자동차’에서 ‘모빌리티’로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
  - ⑦ 자율주행차(AV), ⑧ 개인형 이동장치(PM), ⑨ 도심 항공 이동수단(UAM)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함
  - ⑩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 및 ⑪ 통합교통시스템 마스(MaaS)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

첨부 : CEO Report 『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: 자동차보험의 과거, 현재, 그리고 미래』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http://www.kiri.or.kr>